

전북의

힘

정영웅

3

어머니! 당신을 불러봅니다.

저 광야에 버려져 상처로 얼룩진 제가
목 놓아 불렀던 이름,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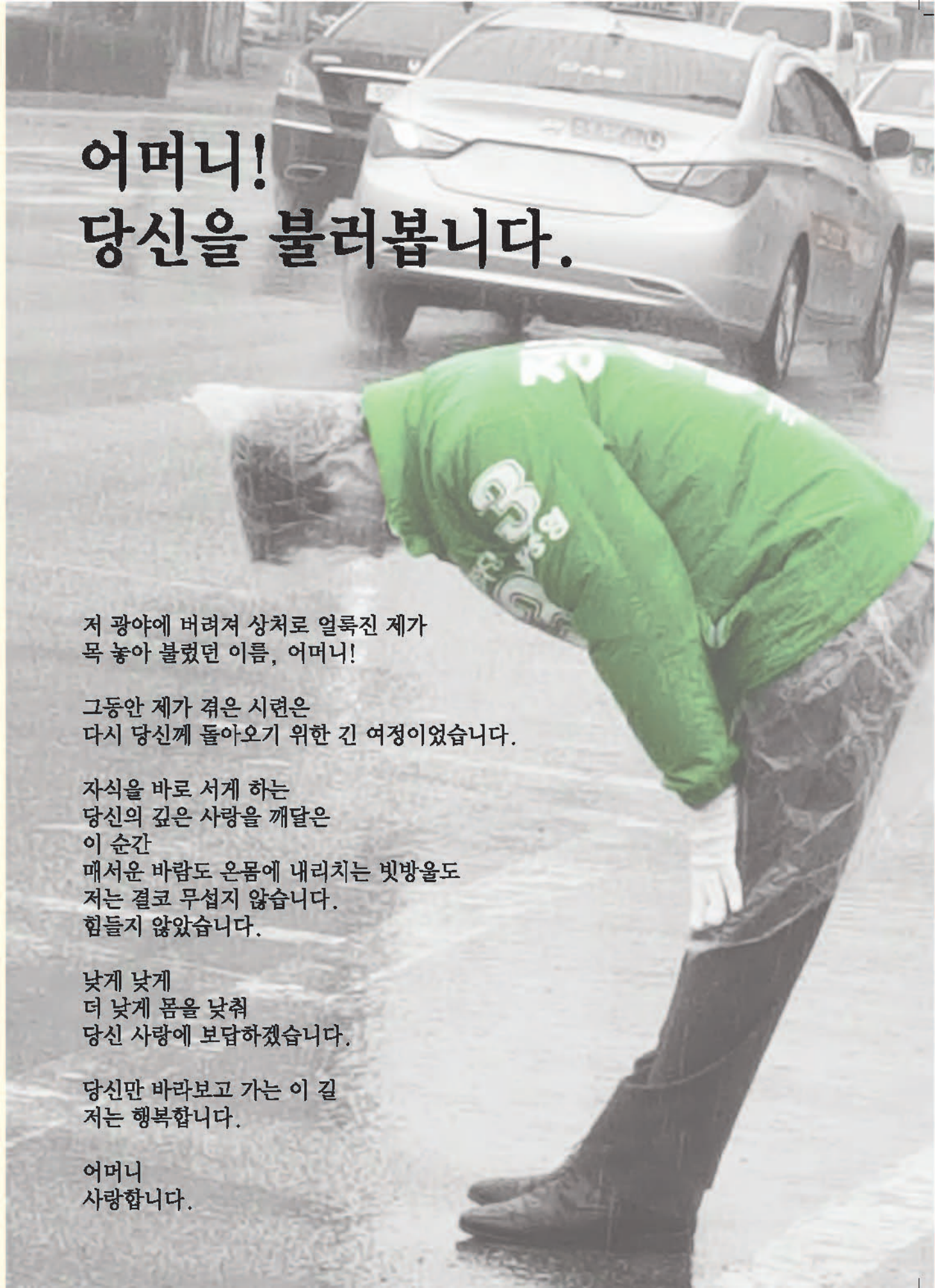
그동안 제가 겪은 시련은
다시 당신께 돌아오기 위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식을 바로 서게 하는
당신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이 순간
매서운 바람도 온몸에 내리치는 빗방울도
저는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낮게 낮게
더 낮게 몸을 낮춰
당신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당신만 바라보고 가는 이 길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동영이 지켜낸 한옥마을, “관



**자영업자들이
잘사는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정동영이 지켜냈습니다!

20년 전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동양의 밀라노로 가야 한다!”
“전주는 맛과 멋으로 살자!”고 외쳤고,
판소리 전용극장(전통문화관)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1997. 6. 30. 전주시 당국은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해 버렸습니다.

정동영은 비상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8년 지방선거에서 “동양의 밀라노 구상”에 동의하는
시장을 모셔와 한옥마을을 보존지구로 재지정했습니다.

만약 이때 교동, 풍남동을 재정비한다고 개발했다면
지금 연간 1,00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올까요?





광도시 전주”로 꽃피우겠습니다!



전라도 탄생 1,000년

종합운동장에 밀레니엄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개도천 1,000년 기념 랜드마크 조형물/ 역사체험공간/ 공연장/ 운동장/ 관광허브

전주시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북의 천년 역사를 기념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인 밀레니엄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2017년 대선 공약에 넣어 새정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도시 전주” 덕진을 통크게 바꾸겠습니다



니다!



송천동에 청년파크 조성!

청년 주택 / 도서관 / 스타트업 카페 / 업무 · 창업 · 상업 시설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센터 부지 주변은 정주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센터 2만평 부지를 유럽형 건축물로 리엔지니어링하고
청년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도립기술장인학교 건립!

전주역세권에 기술과 예술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10만 인제가 전주에서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한국형 건축조형예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건립!

전주 법원 이전 부지에 각종 멀티미디어, 멀티태스킹 PC, 세미나실,
영화 관람실, 전주기록원을 갖춘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덕진주민의 삶을

어르신을 위한 약속

- 어르신 공공근로 임금 한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 30만원으로 인상
- 전북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상 실버버스 도입
-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호성동, 조촌동 · 동산동 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여성 · 장애인을 위한 약속

-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무상보육제도 실현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저소득층에게 무상산후조리를 지원하도록 반드시 예산 확보
-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모든 공공장소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도입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및 자립 생활권 보장

청년을 위한 약속

- 청년 알바 현장 상시 모티터링
-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
- 지역 청년 창업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
- 12,000원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 3만원으로 인상
- 전주시 비정규직센터 확대 운영
-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차별, 부당노동행위 근절



위해 뛰겠습니다!

생활개선을 위한 약속

- 전북의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을 위해 친환경 공법으로 지어진 싸고 튼튼한 공공임대주택, 공정주택 3만호 이상 공급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표준화하고 표준임대료 공시 및 부당임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건물주의 횡포 근절
- 이중리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에 잔디축구장, 배드민턴장, 나비골프 등 생활 스포츠 타운 조성
- 덕진 실내체육관(K.C.C 홈구장) 관람시설 개선

현장공약

- 내 빼앗기고 얻은 국민연금 운용본부, 정동영이 지키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 타운으로 만들겠습니다.
- 전라북도를 친환경 로컬푸드 1번지, 지역순환경제의 상징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겠습니다.
- 전주-완주의 통합을 재추진하겠습니다.
- 송천동에 추진 중인 중인 변전소를 재검토하겠습니다.
-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와 밀폐 창문 재공사 문제 등 주민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게스트하우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모래내시장, 중앙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정동영 죽이기」를 막아주십시오!



“대의를 위해 험지 출마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동영은 2008년 총선에서 당을 위해
희생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서울 동작에 출마해
분투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도 친노가 장악한 당의 압력과
요구에 따라 야당으로서는 절대 당선이
불가능한 서울 강남에 출마하여 희생했습니다.

친노 정치인 중 정동영 만큼 당의 명령을 받들어
사지에서 산화한 정치인이 단 한명이라도 있나요?

낙선이 뻔한 험지에서 희생을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친노 패권세력의
“정동영 죽이기”입니다. 전주시민께서 막아주십시오.

**“정동영은 정통 민주당 노선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친노 패권세력은 자신들의 당권 장악과
대권 가도에 장애가 되는 호남 정치인들의
씩을 잘랐습니다. 영남 패권세력의
“제1호 표적” 이 바로 정동영이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당권을 장악한 친노세력은
전북 중진 정치인들을 공천에서 배제해
정치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나이가 정동영에게 덕진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동영은 강남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북 정치가 최근 급격하게 왜소화된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내치고
영남패권주의에 동조하고 굴종하는
정치인들만 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싶은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전주시민을 섬기겠습니다.

지난 10년, 정동영은 ‘약자가 눈물 흘리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치인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일관되게** 실천해왔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정동영은 MB 정권의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의 기댈 곳이었습니니다.



학생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변, 정동영은 아직 팽목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동영은 대한민국 부의 심장인 강남에서 용기있게 '부자증세'를 외쳤습니니다.



서민정치란 힘있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맞서는 것입니다.(한진중공업 부당행위 지적)



재벌 대기업 횡포에 상처난 근로자들의 아픔에 함께 울고 함께 고민했습니니다.



정동영만은 고공 철탑 위에서 울부짖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동영의 정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전북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영남패권이 장악한 민주당이 저를 변방으로 내몬 것처럼,
전북정치도 변방이 되었습니다.

다시 전북정치를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 국민의당 10명의 후보를 모두 당선 시켜
전북정치를 야권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그 힘으로 야권통합을 주도하여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전북 10명의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똘똘뭉쳐 전북발전을 이루고,
호남정치를 한국정치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기호 3 전북의 힘! 정동영



학 력 전주초등·전주북중·전주고·서울대학교·영국 웨일즈대 카디프대학원 교육학 석사(1년)

주요경력 대통령 후보(전) / 집권당 당의장(전) / 통일부장관(전) / 15, 16, 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영진빌딩 5층
전화 063)277-9766 팩스 063)277-9767

이 인쇄물은 「공직선거법」 제262조에 따라 제작된 것입니다.
인쇄·지판: 컨타뉴(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월2길 44 / 063-245-0309)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로



4.8(금) ~ 4.9(토)

오전 06:00 ~ 오후 06:00

동마다 설치된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